

- 주요 뉴스: 미국 S&P 500 지수, 2년래 최대폭 상승. 다만, 단기 반등이라는 의견 제기
 -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에 과감한 금리인상 필요
 - 미국 농무부, 금년 식음료 가격 인상률 전망치를 7.5~8.5%로 상향
 - 독일 경제장관, 가스 부족 장기화시 일부 산업 중단 우려
- 국제금융시장: 금리인상 강도가 약화될 것이란 일부 전망에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3.1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상승[+4bp]

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기술적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2년래 최대폭 상승
유로 Stoxx 600 지수는 주간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기대감에 강세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위험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
유로화 가치는 0.3% 상승, 엔화는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식음료 가격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반영
독일은 경제지표 둔화와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88.8원, -9.2원) 0.7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6/24일	6/23일	전일대비			6/24일	6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11.7	3,795.7	3.06%	국채 금리 10y	미국	3.13%	3.09%	4bp
	유럽	412.93	402.40	2.62%		독일	1.44%	1.43%	1bp
	중국	3,349.7	3,320.1	0.89%	CDS 5y	한국	49bp	50bp	-1bp
	일본	26,491	26,171	1.23%		중국	79bp	82bp	-4bp
	한국	2,366.6	2,314.3	2.26%	위험 지표	EMBI+	432	435	-3bp
환율	달러지수	104.19	104.40	-0.24%		VIX	27.23	29.05	-6.27%
	유로화	1.0553	1.0523	0.29%		WTI유	107.62	104.27	3.21%
	엔화	135.23	134.95	-0.21%	원자재	구리	374.1	373.9	0.04%
	위안화	6.6898	6.6990	0.14%		금	1,826.9	1,822.8	0.23%
	원화	1,298.2	1,301.8	0.28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S&P 500 지수, 2년래 최대폭 상승. 다만, 단기 반등이라는 의견 제기

- 6/24일 S&P500 지수는 3.06% 오른 3,911.74으로 거래를 마감. 다우 및 나스닥 지수도 각각 2.68%, 3.34% 상승. 이날 알파벳 주가가 5.2%, 메타 주가가 7.19% 상승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
- 큰 폭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,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. Wolfe Research의 Chris Senyek 투자전략가는 최근의 증시 반등이 약세장 속에서의 단기 반등(Bear Market Rally)에 불과하다면서 중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및 기업 실적 하향으로 인한 하락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
- 이날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는 50.0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나,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와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과감한 금리인상 필요

-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'22년까지 금리가 3.5%로 인상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, 향후 10년간 물가 변동폭이 더욱 커지면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

■ 미국 농무부, 금년 식음료 가격 인상을 전망치를 7.5~8.5%로 상향

- 농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금리 인상 등을 반영해 식음료 가격 인상을 전망치를 기존 6.5~7.5%에서 7.5~8.5%로 1%p 상향.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가금류 가격이 올해 13~14% 오를 것으로 예상

■ 독일 경제장관, 가스 부족 장기화시 일부 산업 중단 우려

- Robert Habeck 경제장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, 겨울까지 가스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경우 일부 산업의 운영을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우려. 또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으나 가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

■ UN 총장, 식량난으로 인해 세계적인 기아 위기에 직면

- 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코로나19, 기후변화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례없는 세계 기아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차례 기근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
- 비료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아시아, 아프리카, 북미 등에서의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서 모든 국가들이 사회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

■ 덴마크,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현금 지급을 결정

- 니콜라이 바덴 재무부 장관은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31억 덴마크 크로네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. 또한 전기요금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공공투자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

■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50.0, 사상 최저치 경신

- 미시건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태도지수는 50.0으로 5월 58.4에서 크게 하락해 예상치 50.2를 하회.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47.5로 전월대비 하락.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.3%로 전월과 동일

■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, 금리결정은 주요 정책 도구 역할을 지속할 것

- Huw Pil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긴축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도움이 되지만, 중기적으로는 금리 조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필요시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6/24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5월 신규주택 판매: 69.6만건 4월(62.9만건), 예상치(58.7만건)
- 독일 6월 IFO 기업환경지수: 92.3, 5월(93.0), 예상치(92.5)
- 영국 5월 소매매출(전월비): -0.5%, 4월(1.4%), 예상치(-0.7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ek@kcif.or.kr